

2022학년도 대수능 국어 (10~13)

제1차 수능 경제 지문 분석



트리핀 딜레마

[TRIFFIN DILEMMA]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

1. 환율의 정의와 국제수지



[환율]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비율

1,000₩ = 1\$, 1,000₩/1\$ 로 표시

환율 상승: ₩ 가치 하락, \$ 가치 상승

환율 하락: ₩ 가치 상승, \$ 가치 하락

[국제수지]

일정 기간 동안 국제 거래에서 생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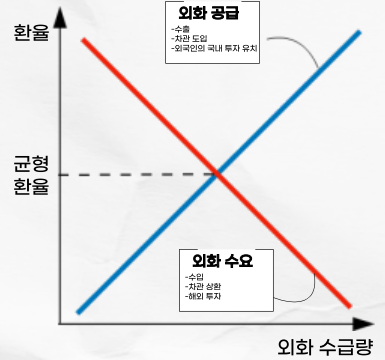
수취된 외화와 지급된 외화의 차액

외화의 수취 < 외화의 지급: 적자

→ 지속적일 경우 대외 신용도 하락, 경기 침체 초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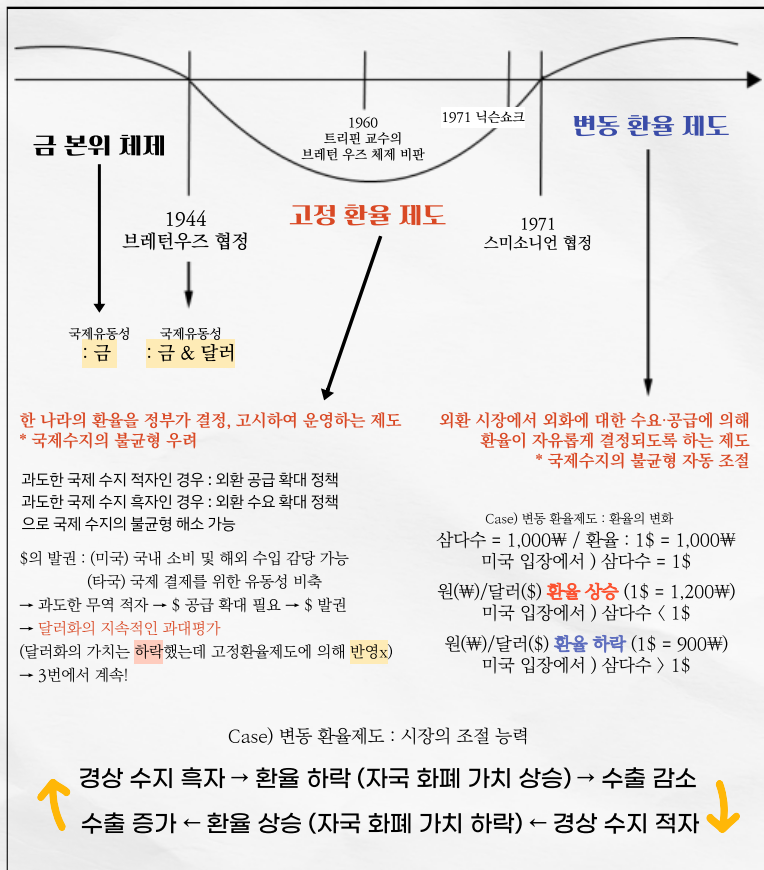
외화의 수취 > 외화의 지급: 흑자

→ 지속적일 경우 무역 마찰 및 통화량 증대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 ① 기축 통화: 국제 거래에 기준이 되는 결제 수단
- ② 경상 수지: 경상(매년 일어나는) + 수지(수취와 지급 = 수출과 수입)
- ③ 국제 유동성 공급: 국제 유동성(여기서는 달러화) + 공급(돈을 준다.)
- ④ 준비자산: 각국의 통화 당국이 대외 결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
- ⑤ 고정환율제도: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에서 환율이 결정되지 않고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

2.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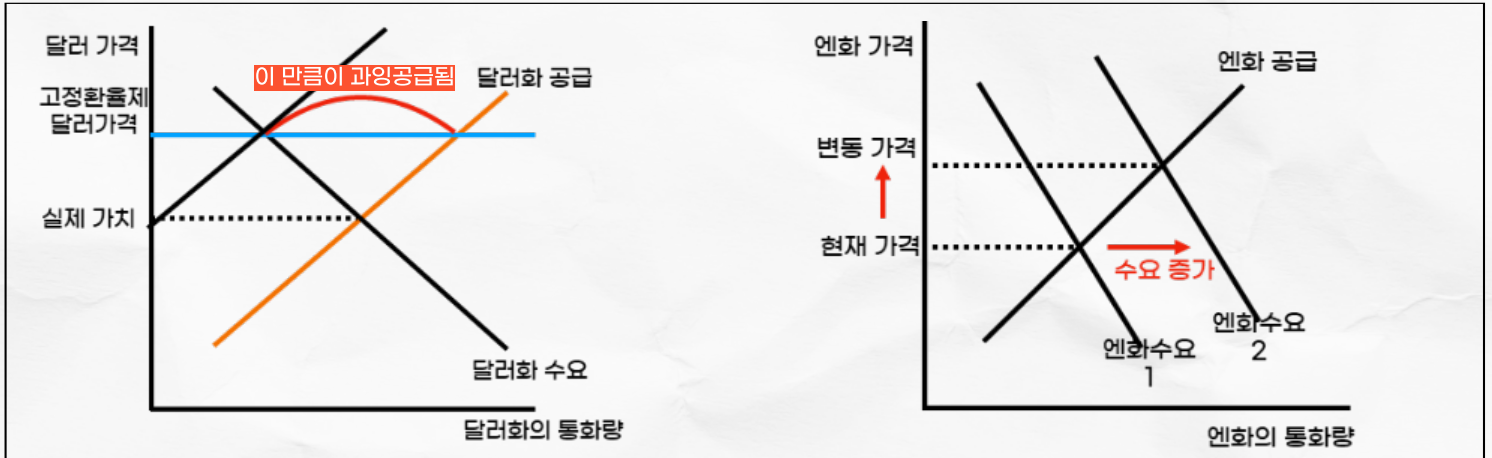
(1)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 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2)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3)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4)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5)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3. 고정 환율 제도의 한계와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 ① 경상 수지 흑자 = 수출액 > 수입액
→ 달러화 공급 증가 → 달러화의 가치 ↓
 - ② 고정환율제에 의해 달러화의 가치 하락이 반영 x
 - ③ 적정 수준에 비해 달러화가 시장에 과잉 공급
 - ④ 외국에서 달러화로 금을 구입하려함
 - ⑤ 시장에는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의 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짐
 - ⑥ 달러화의 지속적인 평가 절상
→ 미국의 무역 적자 지속 → 달러화 과잉공급
 - ⑦ 달러화의 평가 절하 / 타국 통화의 평가 절상 요구
 - ⑧ 평가 절상 된 타국의 거부
(더 저렴하게 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
 - ⑨ 미국 : 교환비율 다시 설정해!
- ① 이런 상황을 예측한 타국
→ 특히 마르크화와, 엔화 수요 ↑
(평가 절상되면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
 - ② 달러화 뿐만아니라, 타국 화폐 가치도 변동
 - ③ 가치 변동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불안정한 상황에 금 수요 증가
 - ④ 미국은 금 태환(교환) 감당 불가
 - ⑤ '나 이제 금 못바꿔줘!' (닉슨 쇼크)
 - ⑥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4. 보충! 규모의 경제 (economics of scale)

대량으로 생산할 때 단위당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록 비용이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즉,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 총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이다.

단기평균총비용 곡선은 기업의 모든 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이루어진 곡선이다.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의 파란색 그래프와 같이 최저점을 가지는 곡선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이 효율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그래프가 아래로 이동하고, 기업의 최대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단기에 비해 장기에는 공장의 임대료, 기계의 가격 등 당장 바꾸기 어려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요소로 본다. 따라서 기업은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노동자를 늘리거나, 자본을 늘리거나! 그래서 파란 그래프의 최저점인 주황색 점이 장기평균총비용의 그래프를 이루는 것이다.

